

59장 죄악에 대한 지적과 백성의 자백, 말씀과 성신으로 주신 언약

59장의 전반부는 죄악을 지적하시는 말씀과 그 백성의 자백으로 이루어져 있다.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9-15a절에서는 ‘우리’가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는 것이다.

1. 죄악을 지적하심 (59:1-8)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었다. 그들의 죄악에서 핵심은 종교적인 예식은 행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지 않은 데에 있었다. 종교적으로는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손은 피로 더러워졌고 입술로는 거짓을 말하였다. 종교의 형식은 지키지만 그 언약의 내용이 무시되는 것이 그들의 죄였다.

그러한 그들의 모습은 마치 독사의 알을 품거나 거미줄을 짜는 것과 같았다.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고 그들이 거미줄로 짠 옷으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다. 악을 행하는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2. 죄악을 고백함 (59:9-15a)

죄를 고백하는 ‘우리’ 안에는 예언자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편에서 ‘너희’의 죄를 지적한 예언자가, 여기서는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백성과 함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다. 그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하였다. 또한 우리가 행한 죄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며(59:12. 참조 시 51:4), 우리는 강포를 행하였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정직과 성실이 없다고 하였다.

3. 말씀과 성신으로 세우신 언약 (59:15b-21)

59장의 후반부는 앞서 56:1에서 약속하신 내용에 대한 응답도 된다. 멀리 있는 이방인이라도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분의 성전에서 기도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살펴보면 종교적인 일에서 악을 행하고 있었고, 의와 정직을 행하는 데에서는 멀리 떠나 있었다.

여호와께서는 백성 가운데 중재할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친히 주님의 팔로 구원을 베푸셨다. 주께서는 전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원수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다(참조 렘 6:10-17). 여호와께서 보복하시고 구원을 행하시는 것은 “**야곱 중에 죄악을 떠나는 자**”를 위한 것이다(59:20). 하나님께서 용사로서 보복하시고 정복하시는 것은 ‘죄악’에서 떠난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의 입에서 여호와의 신과 여호와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알게 하시는 성신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심으로써,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었는데(참조 6:5),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 그 입술을 정결하게 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과 성신으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은 예레미야나 에스겔에게 주신 ‘새 언약’과 동일한 것이다(렘 31:31; 겔 36:26).

59장 익힘 문제

1.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멀리하고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니까? (2절)
2. 1) 이사야 선지자에 의하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데도 그중에 누가 없는 것이 이상하다고 하였습니까? (16절)
2) 여호와께서 친히 중재자로 나타나셨는데 그 모습은 어떤 자와 같았습니까? (17, 18절)
3. 여호와께서 보복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20절)
4. 여호와께서는 언약 백성의 입에서 무엇과 무엇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떠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니까?

(21절)